

645년 高唐 전쟁과 唐兵의 경제적 손실

崔珍烈*

-
- I. 서론
 - II. 唐兵 피해 사료 분석
 - III. 말과 선박의 피해
 - IV. 결론
-

■ 국문초록

『舊唐書』와 『冊府元龜』, 范祖禹의 『唐鑒』에서 645년 高唐 전쟁 당시 唐이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있었다고 기록하였다. 이 논문에서 이를 구체적인 수치로 검증하였다.

『唐會要』·『冊府元龜』·『新唐書』·『資治通鑑』은 645년 唐太宗의 高句麗 침공 당시 육군과 말, 수군의 피해를 다르게 기록하였다. 『唐會要』와 『冊府元龜』에서 唐兵의 피해 가운데 언급한 ‘八駄’는 10명으로 구성된 府兵制의 기충조직인 火마다 무기 등 장비를 싣기 위해 데리고 다니는 8마리의 駄馬를 뜻한다. 필자는 이 駄馬와 戰馬의 수를 추산하였다. 『唐會要』의 기록에 따르면, 죽은 駄馬와 戰馬 수는 84,000-96,000마리이며 당시 전체 말의 23.6-27%에 해당할 것으로 추산된다. 『冊府元龜』의 기록으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연구교수
d-choi@daum.net

로 추산한 사망한 말은 63,000-72,000마리로 전체의 17.7-20.3%이다. 『新唐書』 「高麗傳」에 따르면 죽은 말은 72,000마리이며 20.3%이다. 이는 唐의 국영목장에서 보유한 말의 20-30% 손실이었다. 또 각각 課丁 6,300,000-7,200,000口, 4,725,000-5,400,000口, 5,400,000口, 15,000,000口의 1년 租庸調에 해당한다. 이는 貞觀 13년(639) 課丁이 부담해야 하는 租庸調의 3.3-3.8년분, 2.5-2.8년분, 2.8년분에 해당한다. 水軍의 總管 張文幹이 지휘하는 함선 100척의 대다수가 침몰하였다. 이 손실액은 최대 223,600匹, 즉 貞觀 13년 기준 租庸調의 2.04%에 해당한다. 이세민은 647년과 648년에 네 차례나 高句麗를 침공하며 다시 선박을 건조하였다. 특히 647년에 350척 건조는 張文幹 함대의 침몰 때문이었다. 따라서 張文幹이 지휘하는 함선의 침몰로 최대 貞觀 13년 기준 租庸調의 4.08%의 선박 비용을 잃었다.

본고는 중국 史書에서 감춘 645년 高唐 전쟁에서 唐의 손실을 밝힌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의가 있다.

주제어 : 高唐 전쟁, 당태종, 高句麗, 八駄, 당 수군 침몰, 선박 건조 비용, 張文幹

■ Abstract

The Economic losses of Tang Taizong's invasion of Goguryo in 645

Choi JinYeoul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Korea)

In this paper, I estimated the Economic losses of Tang Taizong's invasion of Goguryo in 645 which were recorded in history books such as *Jiu Tang Shu* and *Cefuyuangui*.

Tang huiyao, *Cefuyuangui*, *Xin Tang shu*, and *Zizhi tongjian* recorded the loss of Tang army and navy during Li Shimin's invasion of Goguryeo in 645, but the specific damage differs in each of the four historical books. According to the records of *Tang huiyao*, *Cefuyuangui*, *Xin Tang shu*, the number of dead horses and battle horses was 84,000-96,000, 63,000-72,000, and 72,000 which is estimated to be 23.6-27%, 17.7-20.3% and 20.3% of the total horses at the time, respectively.

Most of the 100 ships led by commander Chang Wengan, subordinate to Chang Liang, Commander-in-Chief of the Tang navy, were sunk. This loss amounts to 4.08% of regular financial income in 639 including the cost of warship building in 647 and 648 to invade Goguryo again.

This thesis has historical significance in that it is the first study to reveal the Tang Dynasty's economic and financial losses in the Goguryo-Tang War in 645, which were hidden in Chinese historical records.

key word : Goguryo-Tang War, batuo, sinking of Tang naval warships, ship construction cost, Chang Wengan

I. 서론

“上은 [高句麗 침공]이 성공하지 못해 깊이 후회하며 탄식하여 ‘魏徵이 만약 살아있었다면 내가 이 전쟁을 하도록 두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했다”¹⁾라는 『資治通鑑』 卷198 「唐紀」13 唐太宗貞觀十九年十月條의 言說은 唐太宗 시기 대표적인 諫官 魏徵의 활약을 설명할 때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지만 원 사료의 앞부분이 생략되었다. 『舊唐書』 卷199下 「北狄傳」 史臣曰에 “我 太宗 文皇帝는 친히 戎輅를 이끌고 高麗를 東征하였다. 비록 功을 이루었지만, 손해도 심하였다. 개선하여 돌아오는 날에 左右를 돌아보며 ‘朕에게 魏徵이 있었다면 반드시 이 행위가 없었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즉 出師를 후회했음을 알 수 있다”²⁾라고 서술하여 唐太宗의 高句麗 침공이 전과가 있었지만 이 논문에서 살펴볼 駄馬·戰馬와 선박 전복으로 발생한 경제적 손실도 컸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冊府元龜』 卷135 「帝王部」135 好邊功 唐太宗貞觀二十二年條에서도 “처음에 太宗이 高麗를 공격하여 비록 功이 있었으나 손해도 심하여 左右에게 ‘다시 魏徵이 있었다면 반드시 이 행위는 없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³⁾라고 적었다. 이 대목은 『新唐書』에 전혀 기록되지 않았으며 『資治通鑑』은 645년 唐太宗의 高句麗 침공 때 경제적 손실이 있었다는 구절을 삭제하였다. 반면 원사료를 그대로 보존한 『舊唐書』와 『冊府元龜』는 그대로 기록하였다. 范祖禹는 『唐鑒』에서 太宗이 煬帝가 먼곳을 공격하여 나라가 망한 행위를 답습했으며 그의 高句麗 공격이 煬帝와 다를 바 없으며 다만 전쟁으로 唐이 망하지 않았을 따름이라고 평가하였다.⁴⁾ 요컨대 『新唐書』와

1) 資治通鑑 卷198 唐紀13 唐太宗貞觀十九年十月條, 6230.

2) 舊唐書 卷199下 北狄傳 史臣曰, 5364.

3) 『冊府元龜』 卷135 「帝王部」135 好邊功 唐太宗貞觀二十二年條, 1503.

4) 唐鑒 卷3 太宗下 臣祖禹曰, 80, “太宗北擒頡利, 西滅高昌, 兵威無所不加, 四夷

『資治通鑑』은 唐太宗의 645년 高句麗 親征 때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감추거나 은폐한 반면 范祖禹는 唐太宗이 隋煬帝처럼 망하지 않았을 뿐, 큰 피해를 입었음을 긍정하였다.

645년 高唐 전쟁을 이해하기 위해 戰功과 전쟁 이외에 전쟁 비용과 피해 등을 검토해야 하지만 학계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다만 최근에 645년 高唐 전쟁에서 唐의 전쟁물자를 추산하는 연구가 발표되었다. 이 연구에 따르면, 唐兵이 소비했다고 추산되는 곡물 1,606,600石과 소금 1,047,600石이 각각 課丁 1,914,511口의 41.9%에 해당하는 租 납부액이고 후자는 약 5.5년의 租 납부액이었다. 또 營州都督과 백성, 契丹人 등에게 하사한 수천만 단의 비단은 최소 약 5.2년치 調 징수액에 해당하며 전함과 군량 수송선 900척 건조 비용은 536,760口의 租庸調 면제, 즉 租庸調 세수의 28%에 필적하는 비용이었다.⁵⁾ 비용 추산의 방법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高唐 전쟁을 병참 문제와 군사비용으로 파악하려는 시도는 참신하며 선행연구의 한계를 돌파했다는 점에서 선구적인 연구로 평가된다.

필자는 645년 전쟁 기사를 검토한 결과 여러 사서에 등장하는 八駄와 『冊府元龜』「將帥部」逗撓張文幹條의 침몰 기사가 唐兵의 피해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라고 생각하였다. 八駄는 府兵制의 근간인 折衝府의 가장 작은 부대인 1火(10명)가 구비해야 하는 수송용 말의 수이므로 전쟁에 참전한 병력의 수를 계산하면 말의 손실을 계산할 수 있다. 필자는 이러한 실마리를 바탕으로 645년 高唐 전쟁 당시 唐側이 입은 피해를 검토하려고 한다.

震懾而玩武不已。親擊高麗，以天下之衆困于小夷，無功而還，意折氣沮。親見煬帝以勤遠亡國，而襲其所爲。臣以爲太宗之征高麗，無異于煬帝，但不至于戰亡耳。唯不能慎終如始，日新其德，而欲功過五帝，地廣三王，是以失之。然見危而思直臣，知過而能自悔，此所以爲賢也。”

5) 최진열, 2024, 103-115.

645년 高唐 전쟁은 사서마다 기록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사료 비판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먼저 1장에서 『唐會要』, 『冊府元龜』, 『新唐書』 「高麗傳」, 『資治通鑑』에서 645년 唐兵의 피해와 관련된 기사를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2장 1절에서 唐兵이 잃은 八駄와 戰馬의 수를 추산한다. 이어서 2절에서 645년 전쟁을 위해 唐이 건조한 선박 건조 비용과 침몰한 戰艦의 비용을 살펴본다.

이 논문은 645년 唐太宗의 高句麗 親征 당시 사서에서 은폐한 唐兵의 경제적 손실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수치로 추산한 최초이며 획기적인 연구라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의를 지닌다.

II. 唐兵 피해 사료 분석

645년 高唐 전쟁의 唐兵 피해 상황을 사서의 편찬 순서대로 살펴보자.

(가) “처음에 遼[高句麗]에 침입했을 때, 10만 명을 거느렸으며, 각자 八駄가 있었고, 兩軍의 戰馬는 4萬匹이었다. 돌아갈 때 死者는 1,200명이었고, 八駄와 戰死者는 열 가운데 일곱 또는 여덟이었다. 張亮의 水軍 7만 명 가운데 바다에 가라앉아 익사한 사람은 수백 명이었다.”⁶⁾

(나) “十月丙申朔(645. 10. 26)에 蒲溝에 머물렀는데 도로가 막혀 끝나지 않았다. 太宗은 말 위에서 독려하였다. 唐兵이 渤陂水를 건널 때 폭풍이 불고 눈이 내렸으며 날씨가 얼음처럼 찼다. 士卒은 젖고 얼었으며, 泥水에 빠져 죽은 말과 소가 매우 많았다. 조서를 내려 오래 타고르는 큰불을 내어 대처하게 하니 강을 건너는 병사들이 이에 의지하여 무사히 구제할 수 있었다. 처음에 太宗의 軍과 李勣의 軍이 遼[高句麗]로 들어왔을 때,

6) 唐會要 卷95 高句麗傳, 2021.

10만 명을 거느렸고 각각 八駄가 있었으며 兩軍의 戰馬는 1萬匹이었다. 돌아갈 때 죽은 戰士는 1,200명이었고 죽은 八駄와 戰馬는 열 가운데 일곱 또는 여덟이었다. 張亮의 水軍 7萬 명이 바다를 건넜으나 바람을 만나 익사한 자가 수백 명이었다.”⁷⁾

(다) “帝는 渤陂水에 이르러 진흙탕에 막혀 80리에 걸쳐 수레와 말이 움직일 수 없었다. 長孫無忌와 楊師道 등은 1만 명을 거느리고 나무를 베어 길을 만들었고 수레를 이어 다리를 만들었다. 帝는 땀나뭇을 지고 말 위에서 이 일을 도왔다. 十月에 兵이 건너기를 끝냈으나 눈이 심하게 내렸다. 이에 조서를 내려 불을 붙여 唐兵의 도하에 대비하게 하였다. 처음에 [高句麗로] 갔을 때, 士는 10만 명이었고 말은 1萬匹이었다. 돌아올 때 物故는 겨우 1천여 명이고, 죽은 말은 열 가운데 여덟이었다. 船師 7萬 가운데 物故는 또 수백 명이었다.”⁸⁾

(라) “[九月] 乙酉日(645. 10. 15)에 遼東에 이르렀다. 丙戌日(645. 10. 16)에 遼水를 건넜다. 遼澤에 질척질척한 물웅덩이가 있어서 수레와 말이 통할 수 없었으므로 長孫無忌에게 1만 명을 거느리고 풀을 베어 길을 매우며 물이 깊은 곳에서 수레로 다리를 만들라고 명령하였다. 上은 스스로 땀감을 말 채찍 끝에 걸어서 이 작업을 도왔다. 冬十月丙申朔(645. 10. 26)에 上은 蒲溝에 이르러 말을 머무르게 한 후에 길을 매우고 전군이 渤陂水를 건너는 과정을 감독하였다. 蒲溝와 渤陂水는 모두 遼澤 안에 있었다. 暴風과 눈 때문에 士卒이 물기에 젖어 대부분이 죽었다. 이에 길에 불을 붙여 대처하도록 지시하였다. 高句麗를 공격하여 玄菟·橫山·蓋牟·磨米·遼東·白巖·卑沙·麥谷·銀山·後黃 10城을 점령하였고, 中國에 들어간 高句麗의 遼·蓋·巖 3州 戶口가 7萬人이었다. 新城·建安·駐驛 三大戰에서 4萬餘 급을 참수하였던 반면에 戰士 가운데 死者는

7) 冊府元龜 卷117 帝王部 親征第二, 1283.

8) 新唐書 卷220 東夷·高麗傳, 6194.

거의 2천 명이었으며, 戰馬 가운데 死者는 열 가운데 일곱 또는 여덟이었다.”⁹⁾

(가)는 『唐會要』, (나)는 『冊府元龜』, (다)는 『新唐書』 「高麗傳」, (라)는 『資治通鑑』이다.

위의 인용문 (가)에서 唐兵은 육군 10만 명 가운데 전사자가 1,200명이라고 기록했는데, 다음 구절에 전사자가 70-80%에 달했다고 기록하여 서로 모순된다.¹⁰⁾ 수군 7만 명 가운데 수백 명만 익사했다고 서술하였다.

인용문 (나)를 (가)의 기사를 비교하면 高句麗를 공격했던 唐兵의 수는 같지만 戰馬의 수가 다르다. (가)에서 戰馬를 4만 필이라고 기록한 반면 (나)에서 1만 필이라고 표기하였다. 또 (가)의 “죽은 八駄와 戰死者”가 위의 인용문에서 “죽은 八駄와 戰馬”로 바뀌었다.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전사자 1,200명의 기록이 옳다면, 인용문 (나)가 전자, 즉 (가)의 기록보다 문맥상 자연스럽다. (가) 『唐會要』의 기록은 安市城에서 회군할 때의 피해로 해석될 수 있지만, (나)에서 渤鍇水를 건너는 대목 다음에 피해 상황을 기록하고 있어서 渤鍇水와 遼澤을 통과하며 생긴 피해도 포함했을 것처럼 해석된다.

(다)는 (나)와 유사하지만 唐兵의 피해는 (가)와 (나)보다 적게 기록하였

9) 資治通鑑 卷198 唐紀14 唐太宗貞觀十九年十月條, 6230.

10) 『唐會要』와 『冊府元龜』의 唐兵 피해 사료는 유사한데 전자의 “八駄及戰死者十七八”에 대응하는 구절이 후자의 “其八駄及戰馬死十七八”이다. 후자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八駄及戰死者十七八”에 ‘馬’字가 삭제되고 ‘者’字가 추가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者’字를 추가하지 않았다면 “죽은 八駄와 戰馬”로 해석할 수 있지만 ‘者’字를 사람에 사용한다는 점에서 “八駄及戰死者”는 고의적인 누락과 첨가가 아닐 것이다. “八駄及戰死者”의 ‘及’을 ‘至’의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굳이 쓰지 않아도 문맥이 통한다. 따라서 “八駄及戰死者”는 “八駄와 전사자”로 해석하였다.

다. 즉 (가)와 (나)에서 육군 전사자를 1,200명이라고 기록했으나 인용문 (다)에서 1천여 명이라고 하여 200여 명 줄였다. 그리고 八駄의 피해는 기록하지 않고 죽은 말만 원래의 80%였다고 기록하였다. 水軍(船師)의 피해 숫자는 (가)·(나)와 같았다.

(라)는 (나)와 (다)처럼 遼澤을 지나 唐으로 회군하는 장면과 高唐 전쟁의 성과, 병력과 戰馬 손실을 기록하였다. 그런데 (라)는 (가)-(다)보다 전사한 육군의 수보다 많은 약 2천 명이라고 기록하였고 八駄의 피해는 삭제하고 戰馬의 70-80%가 죽었다고 기록하였다. (가)-(다)에 戰馬의 수를 기록하여 피해 수를 알 수 있는 반면에 (라)에서 戰馬의 수를 기록하지 않아 정확한 피해를 집계할 수 없다. 시간상 먼저 편찬된 『唐會要』와 『冊府元龜』에 기록된 八駄가 두 史書보다 뒤에 편찬된 『新唐書』와 『資治通鑑』에서 누락되었다. 또 (가)-(다)와 달리 (라)에서 水軍 병력 충수와 피해자의 수를 기록하지 않았다. 또 玄菟 등 10城을 점령했다는 대목은 『冊府元龜』 「帝王部」 親征門에 실린 十月 癸丑日(645. 11. 12) 詔書와 유사하다.¹¹⁾ 그런데 史書에서 唐兵이 遼東城과 蓋牟城, 卑沙城을 함락했고 蓋牟城의 항복을 받았지만 玄菟·橫山·磨米·麥谷·銀山·後黃 6城을 함락했다는 기사는 없다. 따라서 癸丑日(645. 11. 12) 조서에서 인용한 10城 점령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

위에서 편찬 순서대로 네 기록을 비교하였다. 이를 표로 작성하면 아래와 같다.

11) 冊府元龜 卷117 帝王部 親征第二, 1283-1284.

<표 1> 『唐會要』·『冊府元龜』·『新唐書』·『資治通鑑』의 645년 唐兵 손실 비교표¹²⁾

		『唐會要』	『冊府元龜』	『新唐書』	『資治通鑑』
육군	총수	10만 명	10만 명	10만 명	未詳
	전사자	1,200명	1,200명	1천여 명	거의 2천 명
가축	총수	八駄, 兩軍의 戰馬는 4萬匹	八駄, 兩軍의 戰馬는 1萬匹	말 1萬匹	未詳
	손실	八駄와 戰馬의 70-80%	八駄와 戰馬의 70-80%	말의 80%(8,000필)	戰馬의 70-80%
水軍	총수	7萬 명	7萬 명	7萬 명	未詳
	전사자 (익사자)	수백 명	수백 명	수백 명	未詳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네 史書에 기록된 645년 高句麗를 침공한 唐兵의 수와 피해 숫자가 모두 다르다. 다만 (가)-(다)는 唐兵의 총병력과 水軍의 수 및 피해자 수는 동일하지만 전사한 육군의 수와 駄馬와 戰馬의 피해는 다르다. 또 (가)-(다)에서 모두 張亮이 지휘한 7만 명 가운데 피해 병력은 익사한 수백 명이라고 기록한 반면 『資治通鑑』에서 水軍 정보를 적지 않았다.

앞의 인용문 (가)-(라)에서 알 수 있듯이 唐兵의 피해 숫자도 다르다. 어떤 史書의 기록을 믿느냐에 따라 唐兵의 八駄와 戰馬 피해 숫자가 달라진다. 동일한 전쟁의 피해 사항을 네 개의 史書가 달리 기록하고 있는 점이 이상하다. 이는 唐太宗의 高句麗 침공 당시 唐兵의 병력수도 史書마다 다르게 기록했던 사실과도 일치한다.¹³⁾ 이러한 한계가 있지만 2장에서 645년 唐兵의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12) 출전: 唐會要 卷95 高句麗傳, 2021; 冊府元龜 卷117 帝王部 親征第二, 1283; 新唐書 卷220 東夷·高麗傳, 6194쪽; 資治通鑑 卷198 唐紀14 唐太宗貞觀十九年十月條, 6230.

13) 최진열, 2022, 133-165.

III. 말과 선박의 피해

1. 八駄와 戰馬

1장에서 唐兵의 피해 가운데 『唐會要』와 『冊府元龜』에 기록된 八駄가 주목된다. 八駄는 『新唐書』 「兵志」에 보인다.

“士는 300人으로 1團을 편성하며, 團에 校尉를 둔다. 50人을 隊로 편제하며, 隊에 正을 둔다. 10人으로 火를 조직하며 火에 長을 둔다. 1火는 6마리의 駄馬를 갖춘다. 1火는 烏布幕·鐵馬盂·布槽·鍤·鑿·碓·筐·斧·鉗·鋸를 각각 1개씩, 甲牀와 鎌은 각각 2개씩 갖춘다. 1隊는 火鑕 1개, 胸馬繩 1개, 首羈·足絆 각각 3개를 구비한다. 1人은 弓 1개, 矢 30대, 胡祿·橫刀·礪石·大觶·氈帽·氈裝·行膝 각각 1개씩, 麥飯 9斗, 米 2斗를 스스로 준비하며 아울러 介冑와 戎具를 庫에 보관한다. 전쟁에 참전하면 창고에 납입한 것을 살펴보고 꺼내어 나누어 준다. 番上하여 宿衛하는 者는 오직 弓矢와 橫刀만 지급할 뿐이다.”¹⁴⁾

위 인용문에서 10명으로 구성된 火와 50명으로 편제된 隊, 그리고 군인 1명이 구비해야 할 물건들을 나열하였다. 1火가 준비해야 할 六駄, 즉 6마리의 駄馬는 『唐六典』 卷25 「諸衛府」 諸府條의 細注에 “처음에 8마리의 駄馬를 두었으나 나중에 6마리로 바꾸었다”¹⁵⁾라는 구절에 따르면 원래 8마리였다. 즉 이 구절의 “八駄”는 8마리의 駄馬를 가리키며 1火가 갖추어야 하는 말의 수였다. 즉 唐太宗의 高句麗 침략 당시에는 1火가 8마리의 駄馬를 갖추어야 했음을 알 수 있다. 八駄는 1火, 즉 10명의 짐을 실었다. 여기에 駄馬가 병이 걸렸을 경우를 대비한 여분의 가축이 있었다. 『武經

14) 新唐書 卷50 兵志 府兵之制條, 1325.

15) 唐六典 卷25 諸衛府 諸府條‘火備六駄之馬’句細注, 644.

總要』에서 6마리의 馱馬 이외에 화(火)마다 별도로 나귀(驢) 한 마리를 馱馬의 질병에 대비한 여분으로 준비했다고 기록하였다.¹⁶⁾ ‘6마리의 타마(六馱)’는 8마리의 馱馬가 절충부 휘하 조직인 화(火)에 배치된 태종 이후의 상황이었음을 보여주며, 여분의 가축을 준비한 것은 태종 때의 일로 봐도 좋을 것이다. 따라서 42,200마리의 나귀도 준비해야 했다.¹⁷⁾

府兵, 즉 折衝府 衛士는 騎兵과 步兵 등 다양한 兵種으로 구성되었으므로, 산술적으로 騎兵 부대도 10명마다 八馱, 즉 8마리의 馱馬에 짐을 실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가)-(다)에서 唐 육군의 총수를 10만이라고 밝혔으므로 10만 명에 8만 마리의 馱馬가 배치되었다. 따라서 인용문(가) 『唐會要』와 (나) 『冊府元龜』에서 馱馬의 70-80%가 죽었다는 서술에 따르면, 56,000-64,000마리의 馱馬가 죽었다고 계산된다. 같은 비율로 여분의 노새 7-8천 마리도 죽었을 것이다. 차이점은 (가)에서 戰馬를 4만 마리라고 기록했으므로 죽은 戰馬는 28,000-32,000마리, (나)에서 戰馬를 1만 마리라고 적었으므로 죽은 戰馬는 7-8천 마리이다. (다) 『新唐書』 「高麗傳」에서 ‘말(馬)’로 기록했는데, 이를 馱馬와 戰馬를 합하여 기록했다고 이해하면 戰馬 8천 마리와 馱馬 64,000마리, 그리고 아마도 여분의 나귀 8,000마리가 죽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이러한 사정을 아는 (라) 『資治通鑑』의 찬자는 육군 전사자의 수를 2,000명으로 늘렸지만 ‘八馱’를 생략하고 戰馬만 80%가 죽었다고 기록했을 뿐이다.

위에서 살펴본 馱馬와 戰馬의 수를 정리하면, 『唐會要』에서 죽은 馱馬와 戰馬의 총수가 84,000-96,000마리(와 나귀 7,000-8,000마리), 『冊府元龜』에서 馱馬와 戰馬의 총수가 63,000-72,000마리(와 나귀 7,000-8,000마리), 『新唐書』 「高麗傳」에서 말의 총수가 72,000마리였다. 『資治通鑑』의 기록

16) 武經總要前集 卷6 征馬法, 93.

17) 최진열, 2024.

에서 말 피해 숫자는 알 수 없다. 『唐會要』에 기록된 사망한 말의 수가 가장 많은데, 84,000-96,000마리가 唐이 보유한 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자.

이를 위해 唐太宗 시기 말의 숫자를 파악해야 하는데 唐初 말의 숫자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자. 먼저 『新唐書』 卷50 「兵志」의 기사이다.

“唐이 처음에 건국했을 때 突厥馬 2千匹을 얻었고, 또 隋의 馬 3千匹을 赤岸澤에서 얻어서 隴右로 옮겼으니 監牧之制는 여기에서 시작하였다.”¹⁸⁾

위의 인용문에서 唐은 건국 당시 隴右 지역에서 겨우 5천 마리의 말을 길렀음을 알 수 있다. 張說의 「大唐開元十三年隴右監牧頌德碑」에 이후의 말 사육과 말의 수를 기록하였다.

“처음에 太僕 張萬歲에게 馬政을 관장하도록 하였다. 누대에 걸쳐 덕을 쌓았는데 그 시작을 정리하여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貞觀 연간에 시작하여, 麟德 연간에 완성되는 40년 사이에 말은 706,000匹에 이르렀고 八使를 설치하여 말을 감독하게 하였고 四十八監을 두어 말을 관리하게 하였다. 隴西(渭州)·金城(蘭州)·平涼(原州)·天水(秦州) 4郡의 땅을 넘어 땅의 넓이는 1千 里였는데 오히려 좁아서 다시 八監을 나누어 河曲의 넓은 들에 분포하니, 말을 기를 수 있었다. 이때에 전국에서 縑 1匹로 말 1匹을 바꿀 수 있었으니 秦漢 시대에 성했다고 하지만 아직 듣지 못했다.”¹⁹⁾

위의 인용문에서 張萬歲가 國家의 馬政을 주관한 후에 40년 동안 말이 706,000匹에 이르렀다고 기록하였다. 위의 인용문에서 貞觀과 麟德이라는 연호만 보일 뿐 구체적인 연도를 기록하지 않았다. 『唐會要』 卷66 羣牧使

18) 新唐書 卷50 兵志 監牧條, 1337.

19) 全唐文 卷226 張說6 大唐開元十三年隴右監牧頌德碑條, 2282(卷226의11a).

條에 “貞觀 15년(641)에 尚乘奉御 張萬歲에게 太僕少卿을 제수하여 群牧을 주관하게 하였으며 다른 관직을 설치하지 않았다. 麟德元年(664) 十二月에 免官되었다”²⁰⁾라는 구절이 있다. 이에 따르면 張萬歲가 馬政을 맡은 기간은 40년이 아니라 24년에 불과하다.

『新唐書』 「兵志」에 위의 인용문과 유사한 기사가 있다.

“처음에 太僕少卿 張萬歲에게 群牧을 거느리게 하였다. 貞觀 연간부터 麟德 40년 사이에 말이 706,000마리였고, 八坊을 岐州·邠州·涇州·寧州 사이에 설치하였는데 땅의 넓이가 1千 里였다. 八坊은 保樂, 甘露, 南普閏, 北普閏, 岐陽, 太平, 宜祿, 安定이라 하였다. 八坊의 땅은 1,230頃이며 民을 모집해 경작하게 하여 芻秣을 공급하였다.”²¹⁾

『新唐書』 「兵志」의 羣牧은 八坊이라 불렀는데 「大唐開元十三年隴右監牧頌德碑」와 비교하면 설치 시기, 기간, 말의 수가 같지만 목장이 위치한 지역이 다르다. 「大唐開元十三年隴右監牧頌德碑」에서 隴西(渭州)·金城(蘭州)·平涼(原州)·天水(秦州) 4郡에서 말을 길렀다고 기록하였던 반면, 『新唐書』 「兵志」에서 岐州·邠州·涇州·寧州에 八坊을 설치하였다고 기록하였다. 양자의 기록에서 겹치는 지명이 없다. 「大唐開元十三年隴右監牧頌德碑」의 인용문 후반에 八監의 목장이 河曲의 땅까지 확대되었다는 대목에서 岐·邠·涇·寧 4州가 河曲이었다면 「大唐開元十三年隴右監牧頌德碑」의 기록이 『新唐書』 「兵志」 기사와 모순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4州를 河曲이라고 불렀다는 기록은 없다.

『舊唐書』 卷141 「張孝忠傳附子茂宗傳」에서 “國家에 貞觀中부터 麟德 연간까지 國馬 40萬 匹이 河·隴 사이에 있었다”²²⁾라고 기록하였다.

20) 唐會要 卷66 太僕寺·羣牧使條, 1353.

21) 新唐書 卷50 兵志 監牧條, 1337.

이 기사는 「大唐開元十三年隴右監牧頌德碑」 및 『新唐書』 「兵志」의 기록과 달리 唐이 보유한 말의 수가 다르고 貞觀 연간부터 麟德 연간까지의 기간을 기록하지 않았다.

이처럼 唐初 馬政에 대한 기록에 약간 차이가 있으나 선행연구에서 「大唐開元十三年隴右監牧頌德碑」의 기록을 신뢰하여 唐初 말의 수를 706,000마리로 간주하는 것이 다수설이다.²³⁾ 唐 건국 당시 5千餘匹에서 70만 6千匹로 말이 증가한 이유는 유목국가와의 전쟁에서 획득한 전리품과 西域과의 교역 덕분이다. 貞觀 4년(630) 突厥 頡利可汗과의 전투에서 雜畜 수십만 마리를 노획하였다.²⁴⁾ 貞觀 9년(635) 吐谷渾을 공격하여 雜畜 20여만 마리를 획득하였다.²⁵⁾ 貞觀 15년(641) 薛延陀와의 전투에서 말 15,000匹을 획득하였고 突厥 思結을 격파한 후 획득한 良馬가 많았다.²⁶⁾ 貞觀 17년(643) 薛延陀는 馬 5萬匹, 牛駝 1萬마리, 羊 10萬마리를 바쳐 請婚하였다.²⁷⁾ 이처럼 전리품과 화약으로 얻은 많은 말이 70만 6千匹로의 증가에 기여했음을 알 수 있다.²⁸⁾

전쟁과 공납뿐만 아니라 突厥, 吐谷渾 등과 良馬를 매매하여 말의 수를 늘렸다. 武德 初에 突厥에서 말을 구매하였다.

“이때 中國은 大亂을 겪어서 말이 줄어들었는데, 마침 突厥과 講和하니 趙文恪에게 并州로 가서 齊王 誘와 함께 邊馬를 사서 軍에 구비하라는 조서를 내렸다.”²⁹⁾

22) 舊唐書 卷141 張孝忠傳附子茂宗傳, 3861.

23) 岑仲勉, 2000, 294; 乜小紅, 2005, 42.

24) 資治通鑑 卷193 唐紀9 貞觀四年二月甲辰條, 6072-6073.

25) 資治通鑑 卷194 唐紀10 太宗貞觀九年閏四月乙巳條, 6112-6113.

26) 舊唐書 卷3 「太宗紀」下 貞觀十五年十二月甲辰條, 53-54.

27) 舊唐書 卷3 「太宗紀」下 貞觀十七年閏月戊午條, 55.

28) 乜小紅, 2005, 116-117.

위의 인용문에서 唐이 말을 구입한 동기가 隋末唐初 群雄을 제거하기 위한 전쟁 때문에 죽은 말을 보충하기 위해 并州에서 突厥의 말을 구입하여 군사용으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李安遠은 吐谷渾에 사신으로 파견되어 吐谷渾과 화약을 맺은 후에 吐谷渾의 청으로 互市를 열었다.³⁰⁾ 貞觀 15년(641) 西突厥 厥葉護可汗이 즉위할 때 西突厥에 사신을 보내 말을 구매하였다. 高宗 永徽 연간에 高德逸이 西突厥 阿史那賀魯가 지배하는 西域지역에서 말을 구매하였다.³¹⁾ 玄宗 때 東突厥이 內附하자 互市를 열어 突厥의 말과 양을 구매하고 彩帛을 주었다.³²⁾ 朔方에서 互市를 열어 비싼 값으로 말을 사니 諸蕃이 말을 팔려고 互市에 왔다. 이에 唐兵이 강해졌고 말을 제대로 공급할 수 있었다.³³⁾ 이상의 예에서 唐이 突厥, 위구르, 吐谷渾 등으로부터 말을 구입하여 말의 수를 늘렸음을 알 수 있다.³⁴⁾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唐太宗 시기 말의 수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唐 건국 때 5,000匹과 麟德元年 70만 6千匹의 평균이라고 가정하면 355,500匹이다. 앞에서 살펴본 『唐會要』, 『冊府元龜』, 『新唐書』 「高麗傳」에 기록된 죽은 말의 수와 비교해 보자.

29) 新唐書 卷88 裴寂傳附趙文恪傳, 3740.

30) 新唐書 卷88 裴寂傳附安遠傳, 3746.

31) 資治通鑑 卷199 永徽三年正月癸亥條, 6277.

32) 全唐文 卷40 元宗21 賜突厥璽書條, 440쪽(卷40의19b).

33) 新唐書 卷133 王忠嗣傳, 4554.

34) 乚小紅, 2005, 278.

<표 2> 645년 죽은 말의 비율과 수

史書	駄馬와 戰馬 수(마리)	전체 말에서 차지하는 비율	粟 환산 가격(石)	租 환산(丁)
『唐會要』	84,000-96,000	23.6-27%	42,000,000-48,000,000	21,000,000-24,000,000
『冊府元龜』	63,000-72,000	17.7-20.3%	31,500,000-36,000,000	15,750,000-18,000,000
『新唐書』 「高麗傳」	72,000	20.3%	36,000,000	18,000,000

- 【법례】 1. 말 가격 자료: 『新唐書』 卷50 「兵志」, 1326쪽, “凡發府兵, 皆下符契, 州刺史與折衝勘契乃發. 若全府發, 則折衝都尉以下皆行; 不盡, 則果毅行; 少則別將行. 當給馬者, 官予其直市之, 每匹予錢二萬五千. 刺史·折衝·果毅歲閱不任戰事者鬻之, 以其錢更市, 不足則一府共足之.”
2. 粟 가격 자료: 『貞觀政要』 卷8 「務農」, 238쪽, “貞觀十六年, 太宗以天下粟價率計斗值五錢, 其尤賤處, 計斗值三錢.”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가장 많은 말이 죽었다고 기록한 『唐會要』의 기록에 따르면 645년 唐兵은 전체 말의 23.6-27%에 해당하는 말을 잃었다. 이보다 적게 계산한 『冊府元龜』의 기록을 따르더라도 17.7-20.3%이었다. 唐代 국영 목장의 말 가운데 일부는 驛傳 운영에 사용되었다. 『唐六典』 卷5 「尚書兵部」 駕部郎中員外郎條에 30리마다 驛 1所를 두는데 전국에 모두 1,639개의 驛이 있었다.³⁵⁾ 이 가운데 陸驛은 1,297所이며, 86所는 水陸 겸용이다.³⁶⁾ 전국 1,639개 驛 가운데 1,297所의 陸驛이 있다.³⁷⁾ 驛은 都亭, 第一-第六까지 7개 등급으로 나뉘며 驛馬의 수는 각각 75마리, 60마리, 45마리, 30마리, 18마리, 12마리, 8마리이다.³⁸⁾ 중간의 숫자인 30필로 계산하면 1,297所의 陸驛에 약 4萬匹이 있었다.³⁹⁾ 陸驛에 배치된 말의

35) 唐六典 卷5 尚書兵部 駕部郎中員外郎條, 163.

36) 唐六典 卷5 尚書兵部 駕部郎中員外郎條細注, 163.

37) 乚小紅, 2005, 34.

38) 唐六典 卷5 尚書兵部 駕部郎中員外郎條細注, 163.

수를 제외하면 645년에 唐兵이 잃은 戰馬와 馱馬의 비율은 더욱 높아진다. 『唐會要』, 『冊府元龜』, 『新唐書』 「高麗傳」, 『資治通鑑』에서 전사한 唐兵의 수를 1,200-2,000명으로 기록하여 병력 손실이 적다고 기록하였다. 그러나 戰馬와 馱馬의 손실을 살펴보면 당시 唐이 보유한 말의 약 20-30%에 달했다. 이는 적지 않은 피해였다. 『唐會要』, 『冊府元龜』, 『新唐書』 「高麗傳」, 『資治通鑑』에서 戰馬와 馱馬(八馱)를 기록하지 않거나 모호하게 기록하였으며 네 史書의 기록이 다른 것은 실제로 唐이 잃은 말의 손실을 감추기 위한 서술이었다.

당시 물가 사료를 바탕으로 말 가격을 계산할 수 있다. 『新唐書』 「兵志」에 折衝府에서 말을 지급할 때 官에서 말 1필에 25,000錢을 준다는 기록이 있다.⁴⁰⁾ 전쟁이 벌어진 貞觀 19년과 가까운 貞觀 16년 전국의 곡물 가격은 粟 1斗에 5錢이었고, 쌀 곳은 3錢이었다.⁴¹⁾ 전국적인 평균 가격에 맞춰 계산하면 1石에 50錢이다. 이때의 곡물가로 환산하면 말 1필이 粟 500石에 해당한다. 따라서 唐兵이 645년 잃은 말을 粟으로 구매할 수 있는 가격으로 환산하면 42,000,000-48,000,000石(『唐會要』), 31,500,000-36,000,000石(『冊府元龜』), 36,000,000石(『新唐書』 「高麗傳」)이다. 이는 丁 1口가 1년 동안 납부해야 하는 租가 2石이므로⁴²⁾ 각각 丁 21,000,000-24,000,000口, 15,750,000-18,000,000口, 18,000,000口の 1년 租 징수액이다. 貞觀 13년(639) 전체 인구 12,351,681口에서 租庸調 대신 輕稅의 稅米를 내는 嶺南道⁴³⁾의 인구 642,181口를 제외하면 租庸調를 납부하는 인구는 11,709,500口이다.⁴⁴⁾ 그런데 天寶 연간 計帳에 890여만 戶와 820餘萬 課丁이 있었

39) 李錦綉, 2007, 160.

40) 新唐書 卷50 兵志, 1326.

41) 貞觀政要 卷8 務農, 238.

42) 『舊唐書』 卷48 食貨志上, 2088; 唐六典 卷3 尙書戶部 戶部郎中條, 76.

43) 唐六典 卷3 尙書戶部 戶部郎中員外郎條, 76.

다.⁴⁵⁾ 890여만 戶는 天寶 14載(755)의 8,914,709戶 및 52,919,309口⁴⁶⁾와 유사하다. 따라서 『通典·食貨典』의 호구통계는 天寶 14載(755)의 통계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課丁 820餘萬丁은 天寶 14載(755)의 52,919,309口의 15.5%에 불과하다. 이 비율에 따라 唐前期 租庸調를 부담하는 課丁이 전체 인구의 15.5%였다면 貞觀 13년(639) 인구 12,351,681口 가운데 租調와 요역을 부담하는 課丁은 1,914,511口이다.⁴⁷⁾ 죽은 말에 해당하는 가격, 또는 이를 보충하기 위해 새로 사야 하는 말 가격에 해당하는 곡물을 부담해야 하는 정(丁)의 숫자인 21,000,000-24,000,000口, 15,750,000-18,000,000口, 18,000,000口는 貞觀 13년(639) 기준 課丁의 각각 11-12.5배, 8.2-9.4배, 9.4배이다. 이는 645년 전쟁에서 唐兵이 잃은 八駄 등 말을 보충하기 위해 최소 8.2년, 최대 12.5년의 전조 징수액에 해당하는粟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2. 선박의 피해

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唐會要』, 『冊府元龜』, 『新唐書』 「高麗傳」 세史書에서 水軍 7만 가운데 수백 명이 익사했다고 기록하였다.⁴⁸⁾ 그런데 史書마다 唐에서 출발한 水軍의 수와 내원이 다르다. 『舊唐書』 「高麗傳」에서 平壤道行軍大總管에 임명된 張亮이 江·淮·嶺·碭 勁卒 4萬과 戰船 500艘을 거느리고 萊州를 출발했다고 기록하였다.⁴⁹⁾ 『新唐書』 「高麗

44) 梁方仲, 1980, 78, 甲表23 唐貞觀十三年各道戶口數·平均戶口數及各道戶口數的比重.

45) 『通典』 卷6 「食貨」6 賦稅下, 110-111.

46) 梁方仲, 1980, 69-71, 甲表21 隋·唐·五代戶口數·每戶平均口數及戶口數的昇降百分比.

47) 최진열, 2023C, 150-151.

48) 唐會要 卷95 高句麗傳, 2021; 冊府元龜 卷117 帝王部 親征第二, 1283; 新唐書 卷220 東夷·高麗傳, 6194.

傳」에서도 張亮이 거느린 水軍과 戰船의 수는 같지만 군사는 江·吳·京·洛에서 모병했다고 기록하였다.⁵⁰⁾ 반면 『冊府元龜』 「帝王部」 親征門과 『資治通鑑』에서 江·淮·嶺·峽 勁卒 4萬과 長安·洛陽에서 召募한 3천을 거느렸다고 기록하였다.⁵¹⁾ 네 史書에 기록된 수군의 수는 4만과 4만 3천이라는 두 숫자이다. 그런데 4만과 4만 3천은 『唐會要』, 『冊府元龜』, 『新唐書』 「高麗傳」에 기록된 張亮의 水軍 7만과 차이가 크다. 水軍 병력수의 차이는 645년 唐太宗의 高句麗 침략 당시 唐兵의 병력수 차이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이 전쟁을 기록한 원시 사료가 서로 달랐기 때문일 것이다.⁵²⁾

史書마다 張亮이 지휘한 水軍의 수와 차출 지역이 다르지만 그 피해는 익사자 수백 명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唐의 수군은 큰 피해가 없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상황과 달랐다. 『冊府元龜』 「將帥部」 逗撓·張文幹條의 기사를 살펴보자.⁵³⁾

“張文幹은 行撫州刺史 平壤道行軍總管였다. 貞觀 19년(645)에 遼(高句麗)를 정벌할 때 易州에 머물렀다. 張文幹은 바다를 건널 때 舟舡 다수가 뒤집혔다. 조서를 내려 계속 전진하지 못하고 늦어서 작전지역에 가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張文幹을 참하라고 명령하였다.”⁵⁴⁾

49) 舊唐書 卷199上 東夷·高麗傳, 5322-5323.

50) 新唐書 卷220 東夷·高麗傳, 6189.

51) 冊府元龜 卷117 帝王部 親征第二, 1278; 資治通鑑 卷197 唐紀13 太宗貞觀十八年十一月條.

52) 최진열, 2022, 137-145.

53) 이 사료는 안희상, 2022, 55-60; 서영교, 2023, 96에서 발굴하였다. 두 사람에게 지면을 빌어 사의를 표한다.

54) 冊府元龜 卷445 將帥部106 逗撓張文幹條, 5021.

위의 인용문은 다른 史書에 기록되지 않았고 張文幹의 참형 기사만 『新唐書』 「太宗紀」에 기록되었다.⁵⁵⁾ 平壤道行軍總管 張文幹이 감독한 舟舫 다수가 바다에서 전복되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新唐書』에서 張文幹의 참형 이유를 기록하지 않았는데, 이는 唐 수군의 피해를 은폐하는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수군 총사령관 張亮 아래에 冉仁德·劉英行·張文幹·龐孝泰·程名振 5명이 總管으로 임명되었다.⁵⁶⁾ 이때 唐의 수군이 500척이었으므로⁵⁷⁾ 5명의 총관이 100척의 배를 지휘했을 것이므로 張文幹이 거느린 100척의 대부분이 파손되었을 것이다.⁵⁸⁾ 또 배가 전복했다면 그 배에 탔던 군사들도 상당수 익사했을 것이며 군량과 무기의 손실도 상당했을 것이다. 따라서 4만, 또는 4만 3천, 7만 수군의 약 1/5의 병력 손실이 있었다고 보아도 과과없을 것이다. 즉 張文幹이 지휘한 8,000명 또는 8,600명, 14,000명 중 대부분이 배의 전복으로 익사했을 것이다.

張亮과 張文幹이 탄 배는 전쟁이 벌어진 전 해인 644년에 만들어졌다. 唐太宗은 高句麗를 침공하기 1년 전인 貞觀 18년(644) 七月 辛卯日(644. 8. 20)에 將作大監⁵⁹⁾ 閻立德에게 洪州·饒州·江州 3州로 가서 군량을 실어날라 배 400척을 만들도록 지시하였다.⁶⁰⁾ 『新唐書』 「閻讓傳」에서는 바다에 떠다니는 大航 500척을 만들었다고 기록하였다.⁶¹⁾ 양자의 기록에서 만들도록 명령한 배의 수가 다르다. 浮海大航 500척은 張亮이 지휘한 4만

55) 新唐書 卷2 太宗紀 貞觀十九年十一月癸未條, 44.

56) 冊府元龜 卷117 帝王部 親征第二, 1278.

57) 冊府元龜 卷117 帝王部 親征第二, 1278.

58) 최진열, 2023B, 25-26.

59) 新唐書 閻讓傳에 따르면 閻讓(閻立德)의 벼슬은 將作大監이 아니라 將作大匠이었다(新唐書 卷100 閻讓傳, 3941).

60) 冊府元龜 卷985 外臣部30 征討4 唐太宗貞觀十八年七月條, 11404; 資治通鑑 卷197 唐紀13 唐太宗貞觀十八年條, 6209-6210.

61) 新唐書 卷100 閻讓傳, 3941.

3천인을 싣고 갈 전함 500척과 같은 수이다. 그리고 張亮 등에게 명령을 내린 시점이 貞觀 18년 十一月이다.⁶²⁾ 따라서 군량을 수송할 400척과 다른 배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閻立德 등은 군량 수송을 위한 400척과 戰艦 500척, 즉 모두 900척의 배를 건조하였다.⁶³⁾ 이때 배를 건조한 洪州·饒州·江州 3州의 인구는 합계 33,216戶와 159,460口인데 400척 또는 900척의 배를 만드는데 필요한 596,400口, 또는 1,341,900口보다 턱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3州가 소속된 江南道와 인근 지역인 淮南道 등지에서도 백성들을 동원해야 했다.⁶⁴⁾

『資治通鑑』에 貞觀 22년 九月(648. 9-10)에 强偉가 劍南道에서 배를 건조할 때 大船 1艘의 건조 비용이 庸絹 2,236匹이라는 기록이 있다.⁶⁵⁾ 唐이 645년 高句麗 침공을 위해 900척의 배를 건조하는데 비단 2,012,400匹에 해당하는 비용이 들었다. 이는 배의 재료인 벌목과 운반 비용을 제외한 비용이었다.⁶⁶⁾ 이는 20일 요역으로 1,341,900口를 동원하거나 租庸調 면제에 해당하는 50일 요역으로 536,760口를 동원해야 하는 노동력에 해당한다.⁶⁷⁾ 성인 남성(丁)의 수를 전체 인구의 1/4로 가정하면 644년에 900척의 선박 건조에만 貞觀 13년(639) 당시 租庸調 총액의 18.3%에 해당하는 비용이 들었다.⁶⁸⁾ 반면 貞觀 13년(639) 인구 12,351,681口 가운데 租調와

62) 冊府元龜 卷117 帝王部 親征第二, 1278.

63) 최진열, 2023A, 5-6.

64) 최진열, 2023A, 13-14.

65) 資治通鑑 卷199 唐紀15 太宗貞觀二十二年九月條, 6261-6262.

66) 姜維東은 일반 大船의 庸直은 2,236匹은 丁庸 하루 3尺으로 계산하면 일반 29,813일에 해당하며 伐木과 목재 운반 비용이 포함되면 백성들은 부담하기 어려웠다고 기록하였다(姜維東, 2002, 33-34). 즉 선박 제조 비용에 벌목과 운반 비용이 제외되었다고 보았다. 최진열도 나무를 베고 운반하는 비용이 제외되었다고 주장하였다(최진열, 2023A, 22-23).

67) 최진열, 2023A, 24, <표 3> 唐太宗 시기 高句麗 침략을 위해 건조한 선박의 수와 제조 비용.

요역을 부담하는 課丁은 1,914,511口이므로⁶⁹⁾ 선박 건조에 동원된 536,760口의 租庸調(租調와 正役) 면제액은 재정 수입의 28%에 달한다.⁷⁰⁾

張文幹이 거느린 전함은 이러한 백성들의 동원과 租庸調 수취액의 28%에 해당하는 비용을 들여 만든 선박의 일부였다. 앞에서 張亮 지휘 아래에 있는 5명의 總管이 500척의 배를 지휘하였으므로 總管 1명당 100척을 거느렸을 것이다. 즉 張文幹이 100척을 거느렸다는 추산은 타당하다. 그런데 張文幹이 지휘한 선박 다수가 전복되었기 때문에 이 배들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大船 1척의 건조 비용이 별목과 목재 운반 비용을 제외하고 絹 2,236匹이었으므로 張文幹 함선의 침몰로 최대 223,600匹, 즉 貞觀 13년 기준 租庸調의 3.1%에 해당한다. 이는 선박 건조 비용만 계산 한 것이며 배에 실은 군량과 무기의 가격을 포함하면 그 피해는 더 커진다. 唐의 관리와 史官들은 張文幹 함대의 전복이 끼친 재정적 피해를 알았기 때문에 사실대로 기록할 수 없었을 것이다. 또 『通典』, 『舊唐書』, 『唐會要』, 『新唐書』, 『資治通鑑』의 撰者들도 唐太宗의 高句麗 침공 실패를 덮기 위해 이 기사를 의도적으로 누락했을 것이다. 다만 『冊府元龜』의 찬자 王欽若 등은 역대 사료를 베껴서 보관하는 책의 성격상 『通典』, 『舊唐書』, 『唐會要』, 『新唐書』, 『資治通鑑』의 찬자가 누락한 사료를 그대로 실었다.

이 충격은 張文幹의 참형에 그치지 않았다. 唐太宗은 645년 高句麗 親征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高句麗를 공격하려고 하였다. 貞觀 20년 八月 壬申日(646. 9. 27)에 高句麗의 朝貢을 받지 말라고 명령하고 高句麗 토벌을 논의하도록 하였다.⁷¹⁾ 신하들은 소수의 병력으로 농번기에 高句麗의

68) 최진열, 2023A, 26.

69) 최진열, 2023C, 150-151.

70) 최진열, 2024, 123-132.

71) 資治通鑑 卷198 唐紀14 太宗貞觀二十年八月庚辰條, 6241.

영토를 공격하여 高句麗 사람들이 농사짓는 것을 방해하는 전략을 제시하였다.⁷²⁾ 唐太宗은 647년과 648년에 네 차례에 걸쳐 高句麗를 침공하였다.⁷³⁾ 唐太宗은 高句麗와의 국지전에 필요한 병력과 군량 징발 및 운수와 병행하여 전함 건조를 지시하였다.

“[貞觀 21년] 九月 宋州刺史 王波利와 中郎將 丘孝忠을 보내 江南 12州를 징발하여 入海大船과 艫船 350艘를 만들어 장차 高麗를 정벌하려 하였다.”⁷⁴⁾

위의 인용문은 『冊府元龜』 「外臣部」의 기록인데, 『資治通鑑』에는 貞觀 21년 八月 戊戌日の 일로 기록하였다.⁷⁵⁾ 胡三省은造船에 동원된 江南 12州를 宣·潤·常·蘇·湖·杭·越·台·婺·括·江·洪 12州라고 열거하였다.⁷⁶⁾ 唐太宗이 江南 12州의 백성들을 동원하여 선박을 새로 건조해야 했던 배경도 張文幹의 선단이 전복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즉 張文幹이 이끄는 전함의 전복은 貞觀 13년 기준 租庸調의 3.1%의 선박 건조 비용을 바다 속에 수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만큼의 새로운 전함을 건조하는 비용 또는 백성들의 무상 노동을 허비하게 하였다.

IV. 결론

『唐會要』·『冊府元龜』·『新唐書』·『資治通鑑』에 645년 唐太宗의 高

72) 冊府元龜 卷985 外臣部30 征討4 唐太宗貞觀二十一年三月條, 11405; 『資治通鑑』 卷198 「唐紀」14 太宗貞觀二十一年二月丁丑條, 6245.

73) 최진열, 2023B, 10-17.

74) 冊府元龜 卷985 外臣部30 征討4 唐太宗貞觀二十一年九月條, 11405.

75) 資治通鑑 卷198 唐紀14 太宗貞觀二十一年八月戊戌條, 6249. 八月에 戊戌日이 없기 때문에 ‘八月’은 九月의 오류이다.

76) 資治通鑑 卷198 唐紀14 太宗貞觀二十一年八月戊戌條胡註, 6249.

句麗 침공 당시 전력 손실이 기록되었지만 구체적인 육군과 말, 수군의 피해는 네 개의 史書마다 다르다. 『唐會要』와 『冊府元龜』에 唐兵의 피해 가운데 언급된 ‘八駄’는 10명으로 구성된 府兵制의 기충조직인 火마다 무기 등 장비를 싣기위해 데리고 다니는 8마리의 駄馬를 뜻한다. 필자는 이 駄馬와 戰馬의 수를 추산하였다. 『唐會要』의 기록에 따른 죽은 駄馬와 戰馬 수는 84,000-96,000마리이며 당시 전체 말의 23.6-27%에 해당할 것으로 추산된다. 『冊府元龜』의 기록으로 추산한 사망한 말은 63,000-72,000마리로 전체의 17.7-20.3%이다. 『新唐書』 「高麗傳」에 따르면 죽은 말은 72,000마리이며 20.3%이다. 이는 唐의 국영목장에서 보유한 말의 20-30% 손실이며 각각 課丁 6,300,000-7,200,000口, 4,725,000-5,400,000口, 5,400,000口, 15,000,000口의 1년 租庸調에 해당한다. 또 貞觀 13년(639) 課丁이 부담해야 하는 租庸調의 3.3-3.8년분, 2.5-2.8년분, 2.8년분에 해당한다.

水軍 총사령관 張亮의 부하였던 總管 張文幹이 지휘하는 함선 100척의 대다수가 침몰한 손실액은 최대 223,600匹, 즉 貞觀 13년 기준 租庸調의 3.11%에 해당한다. 唐太宗은 647년과 648년에 네 차례에 걸쳐 高句麗를 침공하며 다시 선박을 건조하였다. 특히 張文幹 함대의 침몰 때문에 647년에 350척의 배를 새로 만들어야 했다. 따라서 張文幹 함선의 침몰은 최대로 貞觀 13년 기준 租庸調의 3.1%의 선박 비용을 추가로 허비하는 결과를 낳았다.

본문에서 추산한 말과 선박의 피해액은 貞觀 13년(639) 課丁이 부담해야 하는 租庸調의 3-4년분에 해당하였다. 이러한 재정손실 때문에 역대 史家들은 이러한 전쟁비용을 감추려고 하였다. 본고는 중국 史書에서 감춘 645년 高唐전쟁에서 唐의 손실을 밝힌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의가 있다.

투고일: 2024.05.31. 심사완료일: 2024.06.17. 게재확정일: 2024.06.24.

| 참고문헌 |

1. 한국어 문헌

- 나동욱, 2009, “640년 후반 高句麗·唐 전쟁에 대한 검토”, *軍史* 72.
- 서영교, 2023, “唐太宗의 고구려 침공과 水軍”, *東洋學* 90, 96.
- 안희상, 2022, “645년 고·당 전쟁과 고구려의 승리 원인”, 동국대학교육대학원 석사 논문.
- 최진열, 2022, “唐太宗 高句麗 親征과 唐軍의 병력·군량으로 추산한 唐軍의 수와 그 함의-”, *軍史* 124.
- , 2023, “唐太宗 시기 高唐 전쟁과 선박 제조·제조 인력과 건조 비용의 재정부담 분석을 중심으로-”, *軍史* 127(2023A).
- , 2023, “647-648년 唐의 高句麗 침공과 인력·물자 동원”, *比較中國研究* 4-2(2023B).
- , 2023, “648년 唐太宗의 高句麗 정복 준비와 그 실상”, *군사연구* 156(2023C).
- , 2024, “645년 高唐 전쟁과 唐의 병참 문제”, *동양사학연구* 167.

2. 한문 문헌

- <舊唐書>
- <新唐書>
- <冊府元龜>
- <資治通鑑>
- <唐會要>(王溥 撰, 2006,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 <唐鑒>(范祖禹 撰, 2003, 白林鵬·陸三强 校注, 西安: 三秦出版社)
- <唐六典>(李林甫 等撰, 1992(2005重印), 陳仲夫 點校, 北京: 中華書局)
- <武經總要前集>(孫雅芬·于孟晨·賀菊玲·弋丹陽 注, 2017, 『武經總要注』, 西安: 西安出版社)
- <全唐文>(北京: 中華書局, 1983)

3. 중국어 문헌

乚小紅, 2005, *唐五代畜牧經濟研究*, 北京: 中華書局.

李錦綉, *唐代財政史稿 第三冊*,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7.

姜維東, “唐朝東征高句麗時的糧運措施”, *長春師範學院學報* 21-3, 2002.

梁方仲, 1980, *中國歷代戶口·田地·田賦統計*,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楊希義·于汝波, 1998, *唐代軍事史上(中國軍事通史 第十卷)*, 北京: 軍事科學出版社.

岑仲勉, 2000, “唐之馬政”, *隋唐史*, 石家莊: 河北教育出版社.